

폴란드 反體制運動研究

——自由勞組運動, 知識人 그리고 소련의 壓力——

李 正 馥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 I. 序 言
- II. 自由勞組運動의 進行過程과
目標

次>

- III. 自由勞組運動과 폴란드 知識人
- IV. 自由勞組運動과 소련의 壓力
- V. 結 語

I. 序 言

最近에 일어난 폴란드의 自由勞組運動은 그것이 執權黨인 統一勞動黨과는
別個의 基盤에서 폴란드의 既存社會主義體制를 變革시키려는 “밑으로부터
의 改革運動”이었다는 點에서, 過去 폴란드를 포함한 東歐諸國에서 일어난
改革運動과는 그 性格이 다르다. 1956年 헝가리 抗拒運動은 당시 헝가리共
產黨 政治局員겸 首相이었던 나지(Imre Nagy)의 支持를 받았다고 볼 수 있
는 改革運動이었고, 1968年 체코슬라바키아의 改革運動은 체코共產黨 第一
書記 두브체크(Alexander Dubcek)가 主導한 것이었다. 1956年 폴란드 勞動
者들의 抗拒運動도 폴란드統一勞動黨 第一書記 고물카(Wladyslaw Gomulka)
의 支持를 받았고, 그의 改革政策은 이들의 要求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1980年代 初에 일어난 폴란드 自由勞組運動은 執權黨인 統一勞動黨
의 指導力에正面挑戰하여 그들 스스로 폴란드의 政治 經濟體制를 變革시키
려는 改革運動이었다.

이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改革運動”은 폴란드에서 1980年에 갑자기 나타
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指摘한 1956年의 抗拒運動이 있었고 그 후에도 1970
年과 1976年 두차례에 걸쳐 폴란드政府의 肉類價引上에 대한 勞動者들의 反
對運動이 있었다. 이 세 경우 모두 勞動者들의 要求는 폴란드政府의 施策에
상당히 반영되었었다. 1956年的 헝가리나 1968年的 체코의 경우와는 달리,

1956年の ポーランドは 少しの 武力介入を 受けず 어느 정도 改革運動을 推進시킬 수 있었고, 1970年과 1976年の 경우 ポーランド労働者들은 그들의 肉類價格引上反対要求를 貫徹시킬 수 있었다. 金번의 自由労組運動은 이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ポーランド労働者들의 利益表出運動이 索積, 發展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自由労組運動이 소련의 反対와 ポーランド軍部의 介入으로 그 目標를 達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運動은 東歐共產主義體制의 内部的 發展方向을 나타내 주는 運動이었고, 이러한 意味에서 이 運動에 대한 좀 더 詳細한 考察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本稿는 우선 自由労組運動의 進行過程과 目標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運動을 發生케 한 動因中의 하나로서 ポーランド知識人の 役割을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運動을 일단은 挫折시킨 소련의 壓力에 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自由労組運動의 進行過程과 目標

ポーランドの 労働者들은 1980年の 自由労組運動이 일어나기 훨씬 以前부터 統一労働黨과 政府의 獨走를 奉制하는 가장 重要한 社會勢力中의 하나였다. 이것은 우선 ポーランド人民共和國의 政變이 모두 労働者의 罷業에서 始作되었다는 事實을 想起하면 더욱 明白해 질 것이다. 1956年 포즈난(Poznan)의 労働者 罷業은 スターリン主義에 反旗를 들었던 “民族的 共產主義者” 고물카가 統一労働黨 第一書記로 復歸하여 改革政策을 폐도록 도왔고, 1970年末 그다니스크(Gdanisk) 레닌造船所 労働者들의 食品價格引上反対罷業은 고물카를 失脚시키고 기에레크(Edward Gierek)政權을 탄생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1976年 ポーランド 労働者들은 다시 政府의 食料品價格引上決定을 反對하는 罷業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 散發의 罷業이 기에레크를 失脚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24時間 以内에 그 引上決定을 撤回하도록 만들었었다. 기에레크는 1970年 末과 1976年 두 경우 모두 여러 번에 걸쳐 그 自身이 黨의 政治局員들과 政府의 閣僚들을 대리고 직접 労働者들과 協商을 하였고, 이 중에는 長長 9時間이나 계속하여 罷業中인 労働者들과 만난 경우도 있었다.⁽¹⁾

(1) 이 對話의 拔萃翻譯文은 *New Left Review*, 72, March-April, 1972에 실려 있다.

폴란드 勞動者들의 이와 같은 影響力 增大는 다른 한편에서 볼 것 같으면 共產主義體制自體의 性格變化를 나타내는 徵候이기도 하였다. 黨과 政府의 最高指導者들이 不法으로 龕業을 일으키고 있는 勞動者들과 協商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狀況自體가 스탈린 時代의 全體主義的 共產主義體制의 틀 속에서는 想像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體制의 이와 같은 性格變化에 대하여 폴란드의 女流社會學者 스타니시키스(Jadwiga Staniszkis)는 東歐의 共產主義體制가 全體主義體制에서 “儀禮化된 全體主義體制”로, 이것이 다시 70年代에 와서는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corporatism)型體制”로 變化하였고, 이러한 變化는 東歐 어느 나라보다도 폴란드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儀禮化된 全體主義體制”란 大衆의 動員과 政治化에 根據하는 全體主義體制와는 달리 大衆動員의 解除와 脫政治化,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政治生活의 儀禮化로 特徵지울 수 있는 官僚主義體制를 가리키고,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體制”란 經濟團體, 勞動者, 農民 等 機能的 社會集團이 共產黨의 指導의 役割에 挑戰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經濟的 利益表出活動을 默認 내지 認定하는 體制를 指稱한다.⁽²⁾ 스타니시키스가 1970年代 폴란드의 體制의 性格을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이라고 한 것은 異例的 着想 같이 보일지도 모른겠다. 왜냐하면 西歐 政治學者들이 말하는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體制”는 폴란드와는 다른 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프랑코治下의 스페인이나 南美의 페루같은 나라를 그 經驗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폴란드 體制를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體制”라고 부른 것은 社會 諸集團의 자유로운 利益表出活動이 어느 정도 默認되었던 1970年代의 폴란드 政治狀況에 특히 有意하였기 때문이라고 理解하면 되겠다.

1980年 여름에 일어난 폴란드 勞動者들의 대대적인 龕業과 改革要求는 이러한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體制”的 境界領域을 훨씬 벗어나는 運動이 있다는 點에서 1970年代 폴란드 勞動者들의 利益表出活動과는 그 性格이 다

(2) J. 스타니시키스著, 大朏人一譯, 『ポーランドの 辨證法』(東京:岩波書店, 1981), pp. 23-38 參照。

(3) 西歐 政治學者들의 “코퍼러티즘” 理論에 대해서는 Frederick B. Pike and Thomas Stritch, eds., *The New Corporatism: Social-Political Structures in the Iberian World*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74)와 Alfred Stepan, *The State and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8)을 參照。

르다. 1980年 7月 1日 폴란드政府가 肉類價格引上을 決定하자 이에 抗議하는 勞動者 罷業이 바르샤바(Warsaw)近郊의 우르수스(Ursus)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罷業은 곧 他地方으로 擴散되어 나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肉類價引上分을 보충할 수 있는 賃金引上을 要求하였고, 이를 위한 그들의 罷業은 平和裏에 進行되었다. 그들은 各工場에 罷業委員會를 組織하였는데 이 委員會들 사이에는 아무런 橫的 連絡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地方레벨에서 각기 그 地方 行政責任者와 協商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要求를 어느 정도 達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8月 중순 발티海岸의 그다니스크에所在한 레닌造船所 勞動者들이 罷業에 突入하면서 부터 不過 10餘日 만에 罷業은 全國的으로 파급되었고, 그 罷業은 從來와는 좀 다른 特性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다니스크 레닌造船所의 勞動者들이 罷業을 시작하면서 他地域의 罷業委員會와 協力하여 8月 16일에는 工場相互罷業委員會(Interfactory Strike Committee, MKS)를 結成하였고, 8月 18일에는 그다니스크 地方의 知事와 바비우후(Edward Babiuch) 首相에게 自由勞組 結成權을 포함한 21個項의 要求條項을 提示하였다.⁽⁴⁾

기에레크는 勞動者들의 抗議를 7月의 段階에서는 各 地域이나 工場別 個別交涉을 통해 그들의 經濟的 要求에 양보함으로써 分散的으로 수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分散的 事態收拾은 勞動者들을 分節化시켜 그들이 커다란 힘을 行使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에레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收拾方案이었다. MKS가 結成된直後에도 그는 이를 罷業勞動者들의 代表機構로 認定하지 않고 各 工場의 罷業委員會와 個別接觸을 試圖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에레크政府의 이 같은 努力은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MKS 參加企業數는 結成當初의 32個에서 곧 370個(勞動者 40萬 以上)로 增加하였으나, 이 중 비까(Tadeusz Pyka)副首相이 이끄는 政府委員會의 個別交涉에 應한 企業數는 17個에 불과하였고, 이 17個의 罷業委員會와의 交涉도 政府委員會가 그들의 要求를 수락하는 條件으로 MKS와의 關係斷絕을 내세웠기 때문에 決裂되고 말았다.⁽⁵⁾

폴란드 勞動者들의 罷業이 全國的으로 急速히 波及되어 감에 따라 黨과

(4) Jan B. de Weydenthal, "Workers and Party in Poland," *Problems of Communism*, November-December 1980, pp. 2-10 參照.

(5) 스타니시키스, *op. cit.*, pp. 38-42.

政府의 機能은 점점 麻痺되었다. MKS 幹部會는 그다니스크地域을 그들의 統制下에 두고, 公共交通機關중 어느 部分을 運行시킬 것이며, 食料品供給은 어떻게 할 것인지 等의 중요한 問題를 決定하였다. 이에 폴란드 政府는 8월 23일, 즉 MKS結成 一週日만에 MKS와의 交涉開始를 決定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하여 야기엘스키(Mieczyslaw Jagielski) 副首相이 이끄는 新委員會를 構成하였다.⁽⁶⁾

여기서 한가지 添言하여 둘 것은 1970年과 1976年의 경우와는 달리 금번에는 知識人們이 勞動者들의 抗議에 대하여 消極的 傍觀의 자세를 버리고 積極的 支持의 자세를 보였다는 點이다. 數十名의 學者·文化人으로 構成된 社會自衛委員會(Committee for Social Self Defence)는 처음부터 積極的으로 罷業勞動者들의 抗議運動을 도왔고, 폴란드의 代表의 知識人 260名은 8월 20일 統一勞動黨 中央委員會에 請願書를 보내 MKS支持의 態度를 表示하였다. 폴란드 政治學會와 社會學會도 政府에 MKS와의 交涉을 勸告하는 內容의 書翰을 보냈다. 이에 비하여 폴란드 카톨릭教會는 매우 慎重한 態度를 取하였던 바, 이들은 罷業當初에는 不支持 내지는 不明確한 態度를 취하다가 8월 27일 以後에야 支持의 態度를 明確히 하였다.⁽⁷⁾

기에레크가 8월 23일, 여태까지의 事態收拾方案을 拋棄하고 폴란드의 全勞動者를 代表하는 MKS와 經濟問題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直面한 全盤의 政治·社會問題에 대하여 協商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그의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 統治路線의 失敗를 意味하고, 그의 失脚을豫告하는 決定이기도 하였다. 为 以 하면 統一勞動黨의 政治局員間에는 罷業勞動者와의 交涉形態의 問題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對立이 있었는데, 이미 指摘한 바대로 기에레크派는 “코퍼러티즘的” 解決方式을 主張한데 반하여, 그 反對派는 폴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전반에 관하여 MKS와 協商할 수 밖에 없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에레크反對派가 “코퍼러티즘型” 體制가 許用하는 上의 自律性을 勞動者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기에레크와 마찬가지로 勞動者들의 自律性을 “코퍼러티즘型” 體制의 條件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지만 그들은 기에레크가 당시 判斷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 양보를 勞動者들에게 해

(6) *Ibid.*, pp. 43-44.

(7) *Ibid.*, pp. 43과 57.

야만 事態를 收拾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에레크路線의 失敗는 즉각 統一勞動黨 政治局의 人事異動으로 나타났다. 8월 24일 同黨 中央委員會는 바비 우호首相을 비롯한 4名의 기에레크派 政治局員을 解任시켰고, 그의 政治的 라이벌인 오르쇼프스키(Stephan Olszowski)를 政治局員으로 復歸시켰다. 기에레크는 폴란드 政府와 MKS間에 協商이 成立된 以後인 9月 6日 辭任하였지만, 그의 失脚은 이미 8月 23日에 決定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폴란드 專門家는 쓰고 있다.⁽⁸⁾

MKS의 結成 自體와 더불어 그들의 21個 要求條項도 기에레크의 “權威主義의 코퍼러티즘型” 統治方式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다니스크 MKS 가 政府에 要求한 第一項目은 “黨과 雇用主로부터 獨立한 自由로운 勞動組合의 承認”이었고 第二項目은 “罷業權의 保障과 罷業參加者 및 支援者의 安全保障”이었다. 그 다음 세項目은 勞動者들의 政治的 自由와 權利에 關한 것으로, 第三項目은 言論·出版의 自由를, 第四項目은 政治犯의 釋方을, 第五項目은 매스·메디아의 MKS 活動報道를 要求하고 있다. 第六項目에서 마지막 第二十一項目까지는 經濟 및 社會福祉面의 要求로 經濟情報의 公開 및 諸社會 集團의 改革計劃討議 參加, 罷業期間中의 賃金支拂, 基本賃金의 引上, 食糧供給의 保障, 「商業店」의 閉鎖 및 「國內輸出店」에서의 商品販賣禁止, 黨機關·警察·國家保安警察의 經濟的 特權廢止, 食糧의 爲正적 구포配給制 實施, 老齡年金受給資格의 緩化, 勞動者에 대한 醫療서비스 改善, 保育院과 幼稚園의 増設, 三年間의 有給育兒休暇制 導入, 住宅割當 待機期間短縮, 出張手當引上, 土曜日 休日制等을 포함하고 있다.⁽⁹⁾

1970년과 1976년의 勞動者 罷業 때에도 勞動者들은 勞動組合의 獨立과 言論의 自由 等을 要求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經濟的 要求를 앞세운 副次的 要求事項이었다. 政府로부터 經濟的 양보를 얻은 뒤에 罷業을 곧 中止하였던 事實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¹⁰⁾ 그러나, 上記 要求條項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의 勞動者 罷業은 여전히 經濟的 理由에 그 發端을

(8) Weydenthal, *op. cit.*, pp. 9-10.

(9) 그다니스크 MKS의 21個 要求條項은 스타니시키스 *op. cit.*, pp. 77-79에 收錄 되어 있다.

(10) 1970년과 1976년 폴란드 勞動者들의 抗拒運動에 대해서는 Peter Green, “The Third Round in Poland,” *New Left Review*, 101-102, February-April 1977, pp. 69-108 參照.

두고 있으나 그들은 經濟的 要求에 앞서 自由勞組의 結成權과 政治的 自由의 保障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要求條項을 폴란드 政府가 수락한다면 勞動者의 黨이라는 統一勞動黨이 勞動者를 實제로 代表하는 自由勞組의 政治的 挑戰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挑戰은 既存의 “權威主義的 코퍼러티즘型” 政治體制의 틀을 깨트릴 것이 分明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政府는 이들의 要求에 대하여 讓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拒否할 能力を 폴란드 政府나 統一勞動黨은 當時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폴란드 政府가 MKS와의 協商을 決定한 8월 23일 부터 兩者間의 最終合意를 본 8월 31일 까지의 會談經過에 대하여서는 形成社에서 日本 資料를 編輯한 한 册子에⁽¹¹⁾ 比較的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最終合意 內容의 問題點만을 指摘하고자 한다. 이 最終合意書는 8월 30일 雙方이 署名한 “獨立自治勞組에 관한 合意書”와 8월 31일의 合意 協定書로 構成되어 있다.⁽¹²⁾ 이 文書에서 폴란드 政府는 MKS가 要求한 自由勞組의 結成權과 罷業權에 대하여 이를 條件附로 受諾하였다. 즉, 8월 30일의 合意書 第一條는 罷業勞動者들의 自由勞組 結成權을 承認함과 同時に 既存 勞組의 存續도 認定하였고, 第 2 條는 自由勞組가 憲法의 틀 내에서 活動할 것이며 反黨의, 反政府의 혹은 外國과의 同盟은 反對하는 活動은 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罷業權에 대하여서는 이 合意書 第 6 條에서 이를 認定하나 今後 法的으로 規定한다고 해 놓고 있다. 自由勞組와 罷業權에 관한 政·勞間의 이와 같은 合意內容은 自由勞組와 既存勞組와의 關係, 反黨, 反政府의 活動의 具體的 判別基準, 그리고 罷業權의 具體的 內容에 대하여 아무런 言及이 없기 때문에 政·勞間 解釋上 충돌의 餘地를 充分히 남기고 있었다. 그다음 言論·出版의 自由에 관하여는 8월 31일의 合意 協定書 第 1 條에 今後 3개월 以內에 政府가 檢閱에 관한 法律을 制定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法律 內容을 어떻게 定하고 解釋하느냐에 따라 政·勞間의 緊張을 다시 惹起할 수 있는 合意라고 할 수 있겠다. 勞動者들의 要求가 그래도 가장 具體的으로 政·勞間에 合意된 것은 NKS의 經濟的 要求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中에서 黨과 基他 機關員의 特權廢止에 대하여는 단지 調査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고,

(11) 형성사 편집부編, 『폴란드：독립자치노조와 민주화투쟁』(서울：形成社, 1981), pp. 120-181 參照。

(12) 이 合意書와 議定書 全文은 *ibid.*, pp. 204-205에 실려 있다.

土曜休暇制 導入도 土曜休暇를 늘린다는 文句로 表現되어 있다. 이러한 協定內容의 不明確性 때문에 앞으로 MKS를 母體로 結成될 自由勞組와 폴란드 政府와의 충돌은 不可避하게 되어 있었다.

政·勞間의 合意에 따라 自由勞組「連帶」가 結成된 1980年 9月부터 「連帶」第一次 全國大會가 開催된 1981年 9月까지의 期間에 「連帶」는 政府와 여러 번 충돌하였으나 대체로 「連帶」의 勝利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제일 먼저 問題가 된 것은 「連帶」의 登錄에 관한 것이었다. 「連帶」가 9月 24日 바르샤바 地方法院에 登錄申請을 냈을 때, 地方法院은 「連帶」의 定款에 統一勞動黨의 指導的 役割에 관한 規定이 없다는 것을 批判하고, 이를 一方의으로 定款에 插入시킨 뒤에 10월 24일 登錄을 許容하였다. 「連帶」는 地方法院의 이와 같은 判決에 不服하고 最高法院에 上訴하였다. 最高法院은 11月 10日 「連帶」가 定款의 附則에 統一勞動黨의 指導的 役割을 名記하고 있으므로, 定款本文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判決을 내리고 「連帶」의 登錄을 認可하였다. 1981年 1月에는 週休二日制의 實施를 둘러싸고 政·勞間의 對立이 發生하였는데, 이 問題도 1月 30日 「連帶」와 政府가 週休二日制 實施에 原則의으로 合意함으로써 일단 解決되었다. 1981년 3월에는 비도고시치(Bydgoszcz) 農民들이 「農民 連帶」의 結成을 위하여 勞動者들과 함께 이곳의 한 公共建物에서 連座籠域을 하면서 地方當局과 交渉을 하고 있는 中에 警察이 侵入, 이를 解散시키는 過程에서 많은 農民·勞動者들이 負傷당하는 事件이 發生하였다. 이 事件은 폴란드 政府가 「農民 連帶」의 登錄問題를 國會에 말긴다고 宣言하고, 5月까지는 「農民 連帶」의 登錄을 받아들이겠다고 讓步함으로써 解決이 났다.

이 세 경우 모두 「連帶」가 政府側으로 부터 讓步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의 罷業威脅 때문이었다. 最高法院이 「連帶」登錄問題를 審議하던 期間中 「連帶」는 그들의 要求가 拒否될 경우에 대비하여 全國 支部에 抗議罷業을 準備시켰고, 週休二日制 問題를 둘러싼 대립 때에도 實際로 土曜日에 抗議罷業을 하였다. 例를 들어 1月 24日 土曜日에는 數百萬의 勞動者들이 出勤을 拒否하고 罷業하였고, 이날 罷業에 參加한 勞動者 數는 폴란드 總勞動者의 50% (政府發表) 내지 80% (「連帶」發表)에 달하였다. 그리고 비도고시치事件 때에는 「連帶」勞組員 1,000萬餘명이 3월 27일 그들 각자의 職場에서 일손을 놓고 警告罷業을敢行하면서, 政府가 그들의

要求를 수락하지 않으면 總罷業에 突入하겠다고 威脅하기도 하였다.⁽¹³⁾

그 이후 9月부터 10月初에 걸쳐 開催된 「連帶」 第一回 全國大會는 「連帶」가 폴란드의 既存政治體制의 틀을 깨뜨리고 統一勞動黨의 指導力에 挑戰하려고 한다는 것을 더욱明白히 하였다. 폴란드 政府가 一年前 「連帶」의 結成을 수락할當時, 「連帶」의 利益集團化를 회避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를 가졌었다면, 이 大會는 폴란드 政府의 이러한 期待를 완전히 座絶시키고 말았다.

「連帶」全國大會는 9月 5일부터 11일까지의 第一會期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第2會期로 나누어 開催되었다. 9月 上旬의 大會 第一會期에서는 東歐諸國에 自由勞組結成運動을 支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議會의 自由選舉를 要求하였다.⁽¹⁴⁾ 이는 「連帶」가 단순히 利益集團으로서의 役割에 멈추지 않고 統一勞動黨의 獨裁的 支配에 대한挑戰勢力으로 活動할 것을闡明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意圖는 第二會期의 決議內容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第二會期에서 大會는 今後의 「連帶」의 運動方向을 나타내는 八章 三十七項의 縱領을 採擇하였다.⁽¹⁵⁾ 同 縱領은 「連帶」의 戰爭目標가 좀 더 나은 生活條件의 獲得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正義와 民主主義의 實現, 權力濫用의 防止, 人間의 尊嚴, 信念의 自由를 成就하는데 있고, 이러한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抵抗하는 데 그치지 않고 “人民 폴란드”建設에 積極努力하여야 한다고 宣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努力에 있어서 「連帶」가 依據하는 價値는 그리스도敎의 倫理, 民族的 傳統, 世界勞動者의 民主的 傳統이라고 하였는데, 實로 이러한 價値는 맙스·레닌主義를 至上의 價値로 信奉하는 폴란드 統一勞動黨의 路線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고 하겠다. 또 同 縱領에는 國內外 情勢에 관한 「連帶」의 判斷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中央의 政黨과 國家機關에 無制限의 權力を 부여하고 있는 現在의 統治制度가 폴란드를 破滅의 危機로 몰아넣고 있으며, 「連帶」는 現在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改革運動의 重要한 構成要素라고 指摘하고 있다. 폴란드의 對外關係에 대하여는 「連帶」가 同盟關係를 侵害하지 않는 方式으로 國際政治構造의 變革을 試圖하여야 한다고 處方하고 있다.

(13) *Ibid.*, pp. 211-247과 藤村信著, 『ポーランド：未來への 實驗』(東京：岩波書店, 1981), pp. 187-335 參照。

(14) 『朝日新聞』, 1981年 9月 26日 朝刊。

(15) 『朝日新聞』, 1981年 10月 8日 夕刊 2面。

「連帶」의 縱領은 이밖에도 「連帶」의 具體的인 行動指針을 포함하고 있는 데,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企業에서 勞動者에 의한 自主管理와 民主的改革을 追求한다.
- ② 危機打開計劃의 테두리 안에서만 市場均衡의 回復을 認定한다.
- ③ 危機打開와 經濟改革은 社會의 管理下에 實行되어야만 한다.
- ④ 法的, 組織的, 財政의으로 獨立한 地方自治團體가 地域住民의 代表가 되어야만 한다.
- ⑤ 社會的, 政治的, 文化的 多元主義가 폴란드 民主主義의 基礎를 이루어 야만 한다.
- ⑥ 自主 管理와 自治가 발전함에 따라 社會・經濟를 擔當하는 議會 第二院의 設立을 促求한다.
- ⑦ 國際通貨基金(IMF) 加盟을 檢討하고, 外國의 援助를 받는다.
- ⑧ 基本的 人權擁護를 위하여 憲法裁判所의 設置를 促求한다.

以上의 「連帶」縱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連帶」는 우선 第一段階로 企業과 地方議會의 레벨에서 自主管理制度의樹立을 追求하였는데, 이는 다음 段階인 中央 레벨에서의 議會政治樹立을 위한 準備段階이기도 하였다. 「連帶」의 顧問, 부로니스와 푸 게레메구教授는 「連帶」縱領探擇 以後 日本 朝日新聞 特派員과의 인터뷰에서 第一段階의 目標를 達成하는데 2年이 걸릴 것이라고, 그 이후에 「連帶」가 中央權力의 體制變革을 追求할 것이라고 論評함으로써, 多元主義에 立脚한 議會制度의 確立이 「連帶」의 窮極的인 目標임을 示唆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連帶」의 縱領은 利益團體로서의 勞組縱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政黨의 縱領과 彷彿한 것이었다.⁽¹⁶⁾

이와 같은 「連帶」全國大會의 結果는 카니아의 辞任을 가져왔다. 그의 後任으로는 그와 함께 穩建中道路線을 擠지해 온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將軍이 選出되었으나 그는 좀더 강경한 「連帶」對策을 가지고 있었고, 「連帶」와 그와의 關係는 12月 2日 바르샤바 消防大學을 約 1週間 占據하고 있던 學生들을 軍과 警察이 實力으로 制壓한 事件을 契機로 惡化되었다. 그後 「連帶」의 活動이 戒嚴令宣布로 禁止되기 이틀 前인 12月 11일에 그다니스크에서 開催된 「連帶」全國委員會는 82年 1月 15일까지 「連帶」主導下에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① 야루젤스키政權에 대한 信任與否를 묻고, ② 暫

(16) 『朝日新聞』 1981年 10月 12日, 朝刊 6面.

定政權의樹立과自由選舉實施에 대한贊成與否를 묻고, ③ 폴란드內의 소련의軍事的利益에 대한認定與否를 묻기로決定하였다. 이러한決定역시 「連帶」가既存社會主義體制의急進的인改革을追求하였다는것을보여주는또하나의證據이다.⁽¹⁷⁾

III. 自由勞組運動과 폴란드 知識人

1970~1971年과 1976年에 일어난 폴란드勞動者들의罷業은 그目標가 주로經濟的인것이었고 이의解決을 위한政·勞間의交涉도罷業이일어난各地方과工場에서個別的으로 이루어진데반하여, 1980年的 폴란드勞動運動은自由勞組의結成權과政治的自由의獲得을 그 가장重要한目標로삼았고 이러한目標의達成을 위한政·勞間의交涉形態도過去와는달리個別交涉의形態가 아니라MKS幹部會와政府와의中央交涉形態를擇하였으며이運動은一年後에는 폴란드政府에 대하여광범위한政治改革을要求하는體制改革運動으로까지發展하였음은 이미既述한바와같다. 폴란드勞動運動의이와같은變化는 폴란드勞動者들의政治·社會意識의成長을반영한다고볼수있겠으나, 1970年이나1976年이아닌1980年에와서勞動者들의意識이현저히政治化된것은어떻게說明할수있을것인가? 단순히1980年에와서야비로소勞動者들이社會·經濟的矛盾의根源이政治體制의性格에있음을깨달았다고말하기에는그들의勞動運動의傳統이너무나길다. 들이켜보면러시아領 폴란드의勞動者들은1905年1月러시아에서“피의日曜日”慘事が일어나기1年前에露日戰爭에反對하는레모를일으켰었고, 1905年初에는總罷業을組織한일이있으며同年6月에는로즈(Lodz)의勞動者들이로즈市를사흘間이나占領하기도하였다. 그以後에도폴란드勞動者들은連座籠域이나罷業을종종일으켰으며, 이때문에西歐에서는한때勞動者들의連座籠城을“Polish Disease”라고까지불렸었다. 그리고1936年에는이미大·中企業에속하는폴란드勞動者中85%가罷業에參加한經驗이있었다고하며, 二次大戰以後의 폴란드勞動運動도이러한오랜傳統을이어받은것으로생각된다.⁽¹⁸⁾

(17) 長谷川慶太郎, “ヤルゼルスキー存亡の決斷,”『文藝春秋』, 1982年2月號, p. 105.

(18) Peter Green, *op. cit.*, pp. 73-74.

그렇다면 70年代까지 經濟的 利益表出活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던 폴란드 勞動運動이 1980年에 와서 體制改革을追求하는 政治運動으로 轉換되는 労動外의 背景은 무엇인가? 이러한 背景으로는 體制自體의 危機를 포함한 여러가지 要因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重要한 要因中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폴란드 知識人們의 姿勢變化에 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地理的으로 러시아와 獨逸 사이에 位置하고 있는 폴란드는 우리의 경우와 같이 過去 2世紀에 걸쳐 줄곧 強大國 政治의 祭物이 되는 運命을 甘受해야만 하였다. 폴란드 知識人們은 韓末과 日帝下의 우리 知識人們과 비슷하게 國家的 民族的 危機에 대하여 두가지 樣態의 反應을 보였었다. 그 하나는 “理想主義的”이고 “浪漫主義的”인 反應으로, 이것은 그들이 甘受해야 할 犠牲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이를 介意치 아니하고 폴란드 民族의 主權回復을 위하여 既存 政治權力과正面으로 戰爭해야만 한다는 立場이었다. 다른 하나는 “現實主義的”反應으로, 이것은 희생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制限된 범위에서나마 民族的 力量을 키우기 위하여 既存 政治權力과妥協할 수 밖에 없다는 行動路線이었다. 二次大戰 以後 폴란드는 形式上으로 主權을 되찾았지만 實質的으로는 소련에 의해 그 主權의 制約를 받았고, 그들의 政治·經濟體制 역시 소련이 强要한 것이었다. 이에 폴란드 知識人们은 또 다시 두가지 行動路線中 어느 하나를 擇하여야 할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모든 폴란드 知識人们이 이 問題를 놓고 고민한 것은 아닐 것이다. 폴란드에 共產政權이樹立된 以後에 大學教育을 받은 상당수의 知識人们은 既存 社會·經濟體制에 編入되어 이에 대한 支持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無視하지 못할 만큼 많은 數의 知識人们, 특히 大學教授, 作家, 저널리스트 等 專門知識人们이 이 問題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때 이들 중 大部分이 ęek한 路線은 “現實主義的”路線이었다.⁽¹⁹⁾

폴란드 知識人们이 1970年代 前半까지 勞動者들의 對政府抗議罷業에 대하여 傍觀的 態度를 취한 것은 바로 이 “現實主義的” 姿勢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知識人们로 하여금 오랫동안 폴란드 勞動運動을 外面하게 한 “現實主義的” 姿勢가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을 가진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 볼 必要가 있겠다. 우리는 이 問題에 대한 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9) Adam Bromke, *Poland's Politics: Idealism vs. Re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參照.

명료한 解答을 비일러시에크(Jack Bielasiak)의 한 論文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⁰⁾ 그는 이 論文에서 戰後 폴란드 知識人們이 취한 자세를 “修正主義 (revisionism)”과 “新實證主義(neopositivism)”로 나누어서 要約하고 있다. “修正主義的” 知識人們은 폴란드 統一勞動黨 指導部의 自覺을 통해서 폴란드가 안으로부터 漸進的으로 改革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自覺은 民主主義的 方式이 統一勞動黨에 浸透한 結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 “修正主義者”들은 大部分이 맙시스트로서 폴란드의 政治·社會體制에 대하여 批判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批判的 活動으로 黨 指導部를 계몽시켜 이러한 상황을 改善시키려고 努力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批判活動이 一定限界內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體制에 대한 集團의 反對나 社會的 壓力의 組織이나 輿論에 대한 呼訴는 삼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新實證主義”는 폴란드 議會內의 카톨릭系 國會議員의 그룹인 즈나크(Znak)를 中心으로 모인 카톨릭系 知識人们的 行動路線이다. 이들은 폴란드의 “地政學的 現實”과 소련과의 關係를 認定하고, 統一勞動黨에 대해서도 妥協的인 態度를 취하였으나, 폴란드의 民族文化가 本質的으로 카톨릭教에 基盤하고 있기 때문에 맙시스트 이데올로기는 폴란드에 맞지 않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폴란드의 民族的·文化的 傳統을 可能한 限 많이 保存하는 것을 그들의 活動目標로 삼았다. 그들은 統一勞動黨 政府를 그들 나름대로의 限界內에서 支持하였고, 이러한 支持의 對價로 黨의 公式的 解釋의 領域 밖에 있는 民族文化와 傳統을 어느 정도는 保護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그룹을 만들고 出版物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修正主義者”들과 마찬가지로 國民的 壓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黨 指導部와의 妥協에 의해 그들의 目標를 成就하고자 하였다.

폴란드 知識人们的 이와 같은 자세는 어디까지나 黨과 政府가 그들의 啓蒙的 批判을 受容할 것이라는 樂觀的 見解에 基因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見解는 무엇보다도 1956年の “Polish October”가 그들에게 보여준 可能性을 契機로 이루어 졌다. 周知하다시피, 당시 폴란드에는 고물카가 統一勞動黨의 第一書記로 再登場하여 中央集權의 經濟運營體制를 포함한 소련式 社會主義 모델을 拒否하고 폴란드는 폴란드에 맞는 社會主義를 發展시켜야 한다고 主

(20) Jack Bielasiak, “Introduction,” *Poland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Summer-Fall 1981, pp. vii-xxiv.

張하였다. 그는 폴란드 經濟에 部分的으로 市場經濟의 原則을 導入할 것을 檢討하였고, 檢閱과 海外旅行制限을 緩化하였다. 또 그가 執權하여 처음 實施한 1957年의 議會選舉는 共產主義式 國民投票 以上의 意味를 가졌다. 이 選舉에는 소련의 경우와는 달리 統一農民黨과 民主黨, 그리고 無所屬도 參加하여 그 競爭率은 거의 2:1에 가까웠다. 그는 소련系 폴란드市民으로 副首相겸 國防相의 地位를 가졌던 로코소브스키(Konstantine Rokossovski)를 解任, 소련으로 돌려보냈고, 소련이 그간 폴란드를 經濟的으로 摧取하였다는 事實을 認定하게 하여 그 補償으로 7억 루불의 援助도 획득하였다. 그는 카톨릭教會에 대해서도 宥和的인 태도를 보여 2年 동안이나 連禁狀態에 있던 비씨진스키(Stefan Wyszynski)樞機卿을 이로부터 解放시켰고, 學父兄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子女들이 學校로부터 宗敎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教會의 人事權에 대한 政府의 統制도 廢止하였다 것이다. 이러한 變化에 접한 폴란드 知識人들이 그들의 將來에 대하여 樂觀的인 見解를 가진 것은 無理가 아니었다. ⁽²¹⁾

그러나 고물카의 改革路線은 얼마 안가서 점점 後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修正主義的” 知識人과 고물카간의 緊張과 葛藤도 점점 高潮되어 갔다. 이러한 葛藤이 表面化된 것이 1965年 쿠론(Jack Kuron)과 모젤루프스키(K. Modzelewski)의 黨에 대한 公開書翰이었고, 이것이 폭발한 事件이 1968年黨과 知識人的 對決과 고물카의 反유태主義運動이었다. 젊은 大學教授였던 이들 두 사람은 폴란드의 既存體制가 中央의 政治的 官僚들이 生產手段과 剩餘價值를 排他的으로 統制하는 새로운 形態의 階級支配體制에 不過하다고 強調하고, 이러한 體制의 革命的 打倒를 主唱하였다. 또 그들은 폴란드의 未來像으로 勞動者에 의한 直接民主主義의樹立, 친정한 意味의 複數政黨制의 확립, 그리고 獨立自治勞組의 組織等을 提示하였다. 1968年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Prague Spring”에 영향을 받은 學生과 知識人들이 知的 自由를 要求한 反政府데모를 하였고, 黨內에서는 휴머니스틱한 맙시스트와 黨 指導部의 對決事態도 일어났다. 고물카는 知識人們의 이러한 挑戰을 反유태主義運動을 展開함으로써 壓殺하였고, 이는 “修正主義的” 路線으로 폴란드를 改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폴란드 知識人們을 크게 失望시켰다.

(21) M.K. Dziewanowski, *Poland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173-209 參照。

그러나 폴란드 知識人們은 社會의 다른 셉터로부터 孤立되어 있었고, 그들의 要求를 黨 指導部가 拒否하였을 때 이에 對抗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폴란드 知識人과 黨 指導부와의 對決은 폴란드 社會의 上層部에서 일어난 事件이었고, 폴란드 勞動者와 農民들은 이에 별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²²⁾

폴란드의 “現實主義的” 知識人們은 1970年末 고물카의 失脚과 기에레크의 登場에 期待를 걸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國民大衆의 物質的 福祉의 向上을 優先視하는 經濟政策을 채택하였고, 對話와 協商의 政治스타일을 追求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政策도 폴란드 黨一勞動黨의 社會에 대한 統制力を 强化시키고, 소련의 對 폴란드 政策에 順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1975~76年 그의 憲法改正提案에 明白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폴란드 統一勞動黨의 指導的 役割과 소련과의 끊을 수 없는 同盟關係를 憲法에 明記하려고 하였고, 社會主義國家建設의 義務를 소홀히 하는 市民에게는 市民의 權利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憲法上の 條項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기에레크의 이와 같은 憲法改正提案은 폴란드 知識人們, 특히 카톨릭系의 “新實證主義的” 知識人们的 反對에 부딪쳤었고, 기에레크는 결국 완곡한 表現을 使用해서 이러한 內容을 改正憲法에 포함시켰다. 이 事件도 폴란드의 “現實主義的” 知識人們에게 그들의 行動路線을 再考하는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²³⁾

폴란드 知識人中 一部가 “現實主義的” 行動路線을 버리고, “準理想主義的”이고 “準浪漫主義的”인 路線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憲法改正反對運動 以後부터인 것 같다. 폴란드 知識人們이 反政府團體를 만들어 黨과 政府에 社會의 壓力を 加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 부터이고, 그들이 여태까지의 勞動者에 대한 傍觀的 態度를 버리고 그들 속에 파고들어가 그들의 政治意識을 啓蒙시키는 活動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1970年代 後半期에 폴란드 相識人們이 組織한 反政府團體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이 1980年~1981年の 自由勞組運動에 어떠한 功獻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反政府團體로 KOR(勞動者 自衛委員會)를 들 수 있다. KOR는 憲法改正反對請願書, 즉 “Manifesto

(22) Michael Szkolny, “Revolution in Poland,” *Monthly Review* Vol. 33, No. 2, June 1981, pp. 4-8 參照.

(23) Dziewanowski, *op. cit.*, pp. 210-231 參照.

of the 59”에 署名한 59名의 知識人이 1976年 9月에 創立한 反政府團體이다. 이 團體가 創立되는 契機는 폴란드 政府의 勞動者 탄압이었다. 폴란드 政府는 同年 6월의 勞動者 罷業 때문에 肉類價 引上案을 撤回하였지만, 罷業의 主謀者를 處罰하고 關聯者를 解雇하고 同調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으로써 勞動者들을 계속 威脅하였다. KOR는 勞動者들을 이러한 政府의 威脅으로부터 保護하겠다는 目的에서 組織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ROPCiO(人權擁護運動)를 둘 수 있는데, 이는 1977年 3月에 組織되었다. ROPCiO의 創立委員中에는 KOR에 屬했었던 知識人們도 數名이 있으나, 兩者의 構成上 差異는 ROPCiO의 構成員이 KOR 構成員보다는 좀 더 右派的인 理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運動對象으로 삼은 人們도 그러한 政治的 性向을 가지고 있는 人们이었다는 點이다. ROPCiO도 KOR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恃意的 處罰의 牺牲者들에게 法的・經濟的 도움을 주는 것을 그들의 活動目標로 하고 있다. 위의 두 團體는 그 構成員을 公表하고 그들의 活動도 어느 정도는 公開的이나, 이들과는 對照的으로 그 構成員을 전혀 밝히지 않는 秘密反政府團體가 있다. 그것은 PPN(폴란드 獨立聯盟)이라는 團體로, 이 團體는 폴란드의 無條件的인 獨立을 主張하고 統一勞動黨의 一黨支配에 反對하는 等現在의 폴란드 憲法에 비추어 볼 때 明白히 “反國家的”이라고 할 수 있는 綱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匿名으로 地下活動을 하고 있다.⁽²⁴⁾

우리는 이들 反government團體의 活動을 살펴보기 前에 그 構成員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 構成員의 成分을 보면 그 團體의 政治的 性格을 좀 더明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KOR는 세 層의 世代로 構成되어 있다. 가장 나이가 많은 老年層은 戰前에 폴란드 社會黨과 같은 反共的인 左派政黨의 黨員으로 活動하였을 뿐만 아니라 反나치運動에 있어서도 赫赫한 功을 세운 人士들이다. 올해 94세의 리핀스키(Edward Lipinski)教授는 그 代表的 人物이다. 그 다음의 40~50代의 壯年層은 한 때는 스탈린이즘에 매혹되어 黨活動을 한 바 있으나, 곧 이에 失望을 노끼고 “修正主義的”立場에서 黨에 대한 批判을 해온 人士들로서, 쿠론 같은 사람이 이들을 代表한다. 마지막으로 30代의 青年層은 1968年 3月의 學生테모에 參加하였던 사람

(24) Tadeusz Szafar, “Contemporary Political Opposition in Poland,” *Survey*, Vol. 24, No. 4(109), Autumn 1979, pp. 40-55와 Andrzej Drawicz, “Experience of Democratic Opposition,” *Ibid.*, pp. 33-39,

들로서, 마흐니크(Adam Michnik)나 마치레비츠(Adam Macierewitz)가 이들을 代表한다. ROPCiO도 老年層과 青·壯年層으로 構成되는데, 老年層은 戰前의 基督民主黨이나 農民黨과 같은 傳統的 保守黨에 參與했던 사람들이고, 그 青·壯年層은 中道右派의in 學生活動의 經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PPN은 秘密團體이기 때문에 그 構成員을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옥스포드大學의 콜라코브스키(Leszek Kolakowski)教授, 캘리포니아大學의 레르스키(Jerzy Lerski)教授, 그리고 西유럽에서 活動하고 있는 作家인 헬링-그루진스키(Gustaw Herling-Grudzinski)를 그들의 地下出版物의 保證人으로 내세우고 있다.⁽²⁵⁾

이들 諸團體는 1970年代 後半期에 어떠한 活動을 하였는가?⁽²⁶⁾ 그들의 活動으로는 우선 勞動者와 一般國民의 人權擁護를 들 수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KOR는 1976年 6月의 龕業에 參加했던 勞動者들에게 法的·經濟的 支援을 提供하였다. 그리고 1977年 5月에는 KOR會員中 몇 명이 당시의 學生運動을 背後操縱하였다는 嫌疑로 逮捕되기도 하였다. KOR는 1976年 6月 龕業으로 拘束된 勞動者 뿐만 아니라 그들 會員의 釋放을 위한 鬪爭을 하였고, 이 運動은 바르샤바 教會에서 斷食鬪爭을 誘發할 정도로 擴散되어 폴란드 政府는 1977年 7月 그들의 釋放을 許可하기도 하였다. KOR는 그 다음 해에 KSS-KOR(社會自衛委員會)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와 같은 人權擁護運動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活動을 위하여 KOR는 政府의 違法行爲와 反民主的 行爲를 찾았고 이러한 行爲의 機牲者를 支援하는 關與局(Intervention Bureau)과 이들 機牲者들을 經濟的으로 도와주는 社會自衛基金(Social Self-Defence Fund)을 自體內에 設立하였다.⁽²⁷⁾ KOR의 知識人們은 勞動者들의 人權擁護에 앞장섬으로써 그들의 信任을 받게 되었고 그들과의 連帶意識도 가지게 되었다.⁽²⁸⁾

둘째로 그들은 勞動者들을 啓蒙시켜 그들의 政治·社會意識을 提高시키는 活動을 하였다. 이러한 活動은 주로 地下出版의 手段을 利用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種類는 약 30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 中 重要한 것은 KSS-KOR

(25) Szafar, *op. cit.*, 47-50.

(26) Joseph Kay, "The Polish Opposition," *Survey*, Vol. 24, No. 4(109), pp. 7-20 參照.

(27) Drawicz, *op. cit.*, p. 36.

(28) Tamara Deutscher, "Poland—Hopes and Fears," *New Left Review*, 125, January-February 1981, pp. 62-64.

의 會員들이 發刊하는 Glos, Krytyka, Biuletyn, Informacyjny KSS, Komunikat KOR, Robotnik와 ROPCiO 會員들이 내는 Opinia, Gospodarz, Ruch Zwiazkowy, Droga, Gazeta-Polska Bratniak 等을 들 수 있다.⁽²⁹⁾ 특히 Robotnik(勞動者)는 発行부수가 50,000이나 되고 各 工場에 勞動者 通信員을 두어 記事を 받고 있는 다른 東歐諸國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類의 新聞이다. 이 新聞이 처음 發刊될 당시(1977年 9月)의 內容을 살펴보면, “왜 고기가 없는가?”, “價格과 인플레이션”, “勞動法의 違反”, “소련과의 關係”, “自由勞組” 等이 실려 있다. 이 新聞은 1979年 7月 18日 勞動者들의 行動綱領을 실었는데, 그 內容은 賃金과 인플레이션의 連繫制, 黨과 國家機關員의 特權廢止, 罷業權의 保障 等이 있다.⁽³⁰⁾ 反政府團體들은 이러한 地下言論活動을 통하여 勞動者 相互間의 意思疎通을 可能케 하고 黨과 政府의 情報獨占을 打破하고, 官製文化의 虛構性을 暴露함으로써 反文化(Counter-Culture)를 創造할 수 있었다.

KOR는 地下出版活動外에 1978年 以來 “移動大學(Flying University)”을 運營하였는데 이것도 그들의 民衆啓蒙活動의 한 部을 擔當하였다. 反體制知識人들은 이 大學에서 一般大學에서는 公式的으로 다를 수 없는 主題와 內容을 一般人과 學生들에게 가르쳤다. 이 大學의 講師들은 “移動大學”이라는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집에서 저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講議를 하였다. 이 講議는 대체로 公開講議였으나, 警察의 탄압이 심하여 집에 따라 公開講議의 數는 줄어들고 秘密塞미나의 形態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移動大學”은 19世紀 폴란드가 獨逸과 러시아에 의하여 分割・占領되었을 때 폴란드 知識人들이 그들의 民族文化를 保護하기 위하여 一般人을 위한 非公式的 大學을 運營한 傳統에 그 起源을 두고 있다.⁽³¹⁾

셋째로 KOR는 勞動者, 農民, 學生, 教人們이 그들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獨自의 結社를 組織하도록 促求하는 活動을 하였다. “自由勞組發起委員會”가 1978年 4月 組織된 것은 KOR의 이러한 活動의 좋은 例이다. “발틱海岸自由勞組發起委員會” 創立宣言文은 그들이 Robotnik와 一體感을 가지고 있고 KOR, ROPCiO, 移動大學 等을 支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9) Lidia Ciolkosz, “The Uncensored Press,” *Survey*, Vol. 24, No. 4(109), pp. 56-67 參照.

(30) Kay, *op. cit.*, pp. 10-11.

(31) *Survey*, Vol. 24, No. 4(109), pp. 114-115와 pp. 166-172 參照.

이 委員會가 發表한 “勞動者 權利憲章”은 1980年 8月 政・勞間 交涉當時 MKS가 提示한 要求條項과 類似한 內容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³²⁾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1970年代 後半期의 폴란드 知識人們은 그 前半期 까지와는 달리 労動者의 人權을 保護하고 그들을 啓蒙・組織하는 活動을 통하여 全體主義의 社會意識의 基盤을 浸蝕시키고자 하였고 폴란드 知識人們의 이와 같은 努力의 結實이 1980~81년의 自由勞組運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反體制 知識人們은 自由勞組運動의 進行過程에서 도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그들은 政・勞間의 交涉 時 労動者側의 專門家들로서 이에 參與하였는데, 이들은 政府側의 專門家들과 같은 知的 背景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원활하게 協商을 進行시킬 수 있었다.⁽³³⁾ 특히 KOR의 會員들은 처음부터 自由勞組運動側과 一體가 되어 活動하였다, KOR 自體가 1981年 9月에는 自由勞組「連帶」에 完全히 흡수되어 스스로 解散을宣言하기에 이르렀다.⁽³⁴⁾

우리는 여태까지 “修正主義的”이거나 “新實證主義的”路線을 따르던 폴란드 知識人們이 1970年代 中半부터 이러한 消極的 路線을 버리고 既存體制에 正面挑戰하게 되는 過程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考察을 끝맺음에 있어서 한가지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70年代 後半期에도 이와같은 “準理想主義的”이고 “準浪漫主義的”인 知識人們는 달리, 계속 “修正主義的”路線으로 體制의 改革을 追求한 知識人們도 많이 있었다는 事實이다. 이의 代表의 例가 “經驗과 未來會”이다. 이 會는 폴란드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條件을 分析하여 이를 改善하는 方法을 提示하기 위해 1978年 10月에 組織되었다. 會에 參加한 100餘名의 人士들은 상당수가 統一勞動黨의 黨員이었고, 그들 중에는 少數이긴 하지만 카톨릭系 知識人們도 있었다. 이 會의 첫번째 討論會는 國家機關인 “知識普及會(Collegium of the Society for the Free Diffusion of Knowledge)”가 後援하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런 政治的 野心이 없음을 明白히 하였다. 그러나 “知識報及會”는 이들의 첫번째 會議가 끝난 다음 곧 이들에 대한 後援을 撤回하였고 政府는 이들의 모임을 事實上 禁止하였다. 첫번째 討論會에 나타난 親體制 知識人们的 既

(32) *Ibid.*, pp. 93-102 參照.

(33) Johan Galtung, “Poland, August-September 1980,”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4, Vol. XVII, 1980, p. 283.

(34) 『讀賣新聞』, 1981年 9月 29日 朝刊 7面 參照.

存狀況分析이 너무나도 體制批判의 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討論會活動을 禁止당한 “經驗과 未來會”는 討論會代身 2次에 걸쳐 書面質問書를 각 分野의 專門家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反應을 수집하여 이것을 報告書로 만들어 政府에 제출하였다. 그 첫번째 質問書는 “共和國의 狀態”에 관한 것이고, 그 두번째의 것은 “脫出口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題目으로 폴란드 政府가 어떻게 現在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報告書에서 그들은 폴란드가 심각한 危機에 빠져있고 黨과 政府가 이를 解決하기 위한 對策을 빨리 세우지 않는다면 社會的 反亂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黨과 政府는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은 自由勞組運動의 爆發로 證明되었다.⁽³⁵⁾

IV. 自由勞組運動과 소련의 壓力

폴란드 勞動者들에 대한 知識人들의 啓蒙活動이 自由勞組運動을 誕生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면, 소련은 自由勞組運動을 挫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이 自由勞組運動에 어떻게 對應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東歐에서 종종 일어나는 反體制運動의 外部的 制約을 照明해 보고자 한다.

소련이 폴란드 勞動者들의 罷業에 대하여 公開的으로 關心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MKS가 組織되어 21個項의 要求를 폴란드 政府에 提示한 以後부터인 것 같다. 폴란드事態에 대한 報道가 「프라우다」나 「이즈베스챠」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政·勞間의 協議가 시작되기 直前과 그 進行中에, 「프라우다」와 「이즈베스챠」는 勞動者들의 罷業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試圖를 非難하고 오직 社會主義的 폴란드만이 獨立國家로 存在할 수 있다고 強調한 기에레크의 8月 19日과 25일의 텔리비전 演說全文을 실었고⁽³⁶⁾, 政·勞間의 合意가 成立된 後에는 “反社會主義的”要素가 폴란드의 勞動運動에 浸透하고 있다는 論評記事를 폴란드 매스미디아를 引用하여 揭載하였다. 특히 9月 2日字 「이즈베스챠」는 統一勞動黨

(35) Michael Vale, ed., *Poland: The State of the Republic* (London: Pluto Press, 1981) 參照。

(36)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XXXII, No. 33, pp. 1과 3.

機關紙 「트리브나 루드」가 폴란드內의 “反社會主義的” 集團들의 活動에 대한 記事を 실었다고 報道하면서, 그 内容을 소개하였다. 이 記事は 첫째로 “反社會主義的” 势力이 최근의 勞動運動에 贏得하여 이미 前에 마련한 그들 自身의 政治的 目標를 實現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이들은 1975年以來 勞動者들의 生活環境에 浸透해 있었는데 이 그룹이 다름 아닌 KOR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同記事는 현재도 그들이 勞動者들의 모임에 나타나 “폭풍같은 演說”을 하고, “刺戟의이고 政治的인 슬로건”을 외치고 “反社會主義的” 見解를 피력함으로써 勞動運動을 “政治的으로 武裝시키려고 한다”고 KOR를 非難하고 있다. 둘째로 이 記事は 이와 같은 “反社會主義的” 势力의 目標가 政治勢力間의 自由競爭을 許容하는 分위기를 造成하여 社會主義를 안으로부터 分裂시키는데 있다고 強調하였다. 마지막으로 同記事는 勞動者들의 正當한 要求를 KOR를 中心으로 한 集團의 “反社會主義的” 음모와 구별해야만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³⁷⁾

1980年 8月 「프라우다」나 「이즈베스챠」가 폴란드 統一勞動黨機關紙인 「트리브나 루드」의 報道記事와 論評記事를 실은 것은 폴란드 勞動者들이나 西方側을 刺戟하지 않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폴란드 統一勞動黨에 대한 信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1980年 폴란드事態는 1956年의 헝가리事態나 1968年의 체코事態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兩者的 경우 모두 黨과 政府의 指導級 人士들이 “밑으로부터의” 右派的 體制改革要求를 받아들였고 그들 自身들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改革意志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兩國의 體制上 右傾化를 막기 위하여 軍事介入을 하였던 것이다. 금번 폴란드 경우에는 “밑으로부터의” 體制改革要求에는 “反社會主義的”, 다시 말하여 右派的 要素가 있었으나, 黨과 政府의 指導部가 이러한 右傾化에 反對하고 있었으므로 소련이 軍事介入의 커다란 對價를 치를 理由가 회박하였다. 물론 폴란드의 黨과 政府가 體制上의 右傾化要求를 제어할 能力이 없을 경우에는 소련의 軍事介入이 不可避했을 것이다, 1980年 8月末 政·勞合意當時 黨과 政府側은 勞動者들로부터 그들이 反黨·反政府 行爲를 하지 않고 外國과의 同盟에도 反대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받아냈고, 政·勞合意 以後 勞動者들의 龍業行爲는 일단 中止되었으므로 소련은 統一勞動黨의 事態收拾에 期待를 걸었던 것이

(37) CDSP, Vol. XXXII, No. 35, p. 7.

다. ⁽³⁸⁾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期待와는 달리 政・勞間의 合意가 이루어진 後에 自由勞組 「連帶」의 登錄問題, 週休二日制問題, 農民連帶의 結成問題 等으로 政・勞間의 충돌은 계속되었고, 이 때마다 「連帶」는 罷業權을 行使하거나 이를 行使하겠다고 威脅함으로써 그들의 要求를 상당히 慣撤시킬 수 있었음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카니아가 이끄는 統一勞動黨 政府는 「連帶」로부터 “反社會主義的” 要素를 除去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에게妥協의인 態度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事態를 收拾해야 될 立場에 있던 統一勞動黨 内部에서도 「連帶」의 活動에 영향을 받은 平黨員들의 黨改革運動이 일어났다. 1980年 8月 중순 MKS 結成當時의 總會會員中 1/3이 黨員이었고, 그 幹部會 18人中 3인이 黨員이었다. 또 「連帶」의 경우도 會員中 1/10에 달하는 약 100萬명이 黨員이었다. 이를 보면, 「連帶」가 平黨員의 運動(grassroots movemen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理解할 수 있다. 이들이 일으킨 運動의 內容은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는데 하나는 水平組織運動이고, 다른 하나는 責任主義運動이다. 水平組織運動은 각기 다른 工場과 機關의 黨細胞組織을 水平의으로 連結하는 組織을 만드는 運動이었는데, 平黨員들은 이러한 水平組織을 통하여 個別細胞組織의 孤立을 방지하고, 相互間情報を 交換함으로써 中央黨과 地方黨機關의 垂直的 支配를 弱化시키고자 하였다. 責任主義運動은 黨指導부가 黨員들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만 한다는 要求로, 이것은 黨內秘密選舉의 實施, 黨幹部職의 任期制, 複數職責同時任用의 禁止 등을 포함하고 있다. 平黨員들의 이러한 運動은 한마디로 統一勞動黨 官僚階層(1萬명의 黨幹부와 黨의 承認이 없이는 任用될 수 없는 18萬명의 國家機關員—이 18萬명의 명부를 nomenklatura라고 부름—으로構成됨)의 特權을 打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統一勞動黨 指導부는 失政과 不正腐敗로 平黨員 사이에서도 위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要求를 묵살할 수 만은 없었다. ⁽³⁹⁾

自由勞組「連帶」結成 以後 이러한 狀況에 접한 소련은 한편으로는 「連帶」

(38) 소련의 軍事介入要件에 대해선 木村汎, “ソ連の對東歐政策,” 日本國際政治學會編, 『戰後東歐の政治と經濟』(東京: 有斐閣, 1970), pp. 1-24 參照。

(39) George Schöpflin, “Poland: The Party Reform Movement,” *Soviet Analyst*, Vol. 10, No. 11, May 27, 1981, pp. 2-5.

에 대한 非難을 加一層 激化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統一勞動黨 指導部에 대한 不滿을 露骨의으로 表明하기에 이르렀다. 「連帶」의 登錄問題로 政·勞間이 緊張狀態에 있었던 9월부터 11월 中, 소련의 매스메디아는 폴란드內의 매스메디아를 引用하여 KOR가 勞動者層에 浸透, 勞動運動을 빙자하여 “反社會主義的” 政治活動을 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그들의 戰術은 “事態가 惡化되면 될수록 좋다”(The worse it gets, the better it is)는 原則에 根據하고 있다고 弘烈히 非難하였다.⁽⁴⁰⁾ 週休二日制로 政·勞間의 對立이 高潮되었던 1981年 1月 中에는 「프라우다」와 「이즈베스챠」가 폴란드 매스메디아가 아닌 타스통신을 引用하여 「連帶」가 KOR라고 부르는 “極右派”的 사주를 받아 右傾 政治團體化하고 있으며 그들이 統一勞動黨과 政府의 事態收拾에 反對하고 있다고 直接 報道하고 있다. 소련의 매스메디아가 11月 中까지는 KOR를 中心으로 한 自由勞組運動의 “右派的” 要素에 그 공격을 집중하였으나, 그 以後 부터는 「連帶」도 그들의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소련 측의 變화라고 할 수 있다.⁽⁴¹⁾ 특히 1980年 12月 26日字 「프라우다」紙는 바글라이(M. Baglai)教授의 “社會主義 社會條件下에서의 勞動組合”이라는 글을 싣고 있는데, 이 글에서 바글라이教授는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勞動中斷”(罷業)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事態는 그 原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勞動者들의 經濟的 抗議에 다른 意味를 부여하려고 하는 “反社會主義 分子”들의 손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고 指摘함으로써 폴란드 勞動者들의 간헐적인 罷業과 罷業威脅을 非難하고 있다.⁽⁴²⁾ 1981年 3月의 「버도고시치」事件으로 「連帶」會員 약 114萬名이 4時間의 警告罷業에 突入한 後에 소련은 現在 “反 폴란드主義者”들의 集團인 KOR가 「連帶」의 行動方向을 左右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이들을 “五列(fifth column)”이라든가 “反革命分子(Counter-revolutionary)”라는 극렬한 單語를 使用하여 謗謗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의 한 新聞은 KOR會員과 西方側의 接觸을 非難하고, 「連帶」가 美國의 AFL-CIO를 포함한 西方側으로부터 \$ 265,000를 받았다고 暴露하였다.⁽⁴³⁾

소련의 폴란드 統一勞動黨의 指導부에 대한 不滿은 누구보다도 黨第一書

(40) CDSP, Vol. XXXII, No. 49 參照.

(41) CDSP, Vol. XXXIII, No. 1과 No. 5를 參照.

(42) CDSP, Vol. XXXII, No. 52, pp. 5-6.

(43) CDSP, Vol. XXXIII, No. 17, pp. 1-3.

記 카니아에 대한 不滿이었다. 소련은 카니아의 登場에 충격을 받았다는 說도 있는데⁽⁴⁴⁾, 이는 전혀 根據가 없는 說은 아니다. 그는 貧農出身으로 統一勞動黨 社會科學大學의 經濟學部를 卒業한 人物로서 穩健中道派에 屬하는 사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路線은 1980年 9月 7日 黨中央委員會에서의 第一書記 就任演說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演說에서 그는 7, 8月 一連의 罷業事態가 폴란드政府의 失政으로 인한 勞動者들의 經濟的 不滿에서 일어난 것이지, 社會主義原則과 同盟關係에 반대하거나 統一勞動黨의 指導的役割에 挑戰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力說하였다. 이러한 失政의 責任者인 기에레크에 대하여서도 그가 病患中에 있으므로 당장은 評價를 삼가는 것이 禮儀라고 하면서 그의 50年에 걸친 봉사를 일단은 치하하였다. 이 演說에서 그는 勞動者들의 不滿을 解消하기 위하여 앞으로 廣範圍한 改革政策을 펴나갈 것도 아울러 約束하고 있다.⁽⁴⁵⁾ 그는 政府와 「連帶」가 여러가지 問題로 對立하게 됨에 따라 「連帶」를 剝離하게 非難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諸問題를 解決하는 方式에 있어서는妥協的인 態度를 취하였다. 또 그는 平黨員들의 黨民主化要求에 따라 1981年 7月에 全黨大會를 열기로 하고, 이 大會의 代表는 自由秘密選舉로 뽑도록 허용하였다. 카니아의 이러한 事態收拾方式을 소련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事態進展을 우려한 소련은 統一勞動黨 指導部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忠告의 形式으로 不滿을 表示했던 것 같다. 소련은 1980年 12月 5日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社會主義國家 兄弟黨 指導者會議”에서 폴란드事態를 論議하였고⁽⁴⁶⁾, 1981年 3月 4일에도 소련 共產黨 指導部는 同黨 26次全黨大會에 參席한 폴란드 代表와 이 問題에 대한 會議를 열었다.⁽⁴⁷⁾ 소련은 1981年 4月 23일에는 강경파 이데올로기인 수슬로프(Mikhail Suslov)를 폴란드에 보냈는데, 이는 그들의 不滿을 더욱 強力하게 表現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수슬로프가 이미 몇 달 前부터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武力介入을 主張했다는 西方側 情報나, 4月初 東獨 共產黨大會에서 “社會主義的敎示로부터의 逸脫은 치명적인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強調한 그의 演說을 考慮할 때, 그의 폴란드 訪問自體가 警告訪問으로서의 意味를 지닌다

(44) 형성사 편집부編, *op. cit.*, p. 279.

(45) *CDSP*, Vol. XXXII, No. 36, pp. 7-8.

(46) *CDSP*, Vol. XXXIII, No. 40, pp. 6-7.

(47) *CDSP*, Vol. XXXIII, No. 9, pp. 22-23.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슬로프가 統一勞動黨 政治局員 全員과 만나 그들로부터 危機克服을 위한 黨의 努力과 7月에 있을 全黨大會의 準備狀況을 들었다는 報道로 보아 그의 訪問은 警告訪問의 意味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政治狀況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實情把握 訪問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수슬로프가 폴란드를 訪問한 이후 소련 共產黨은 폴란드問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論議를 한 바, 이 結果로 나온 것이 소련 共產黨 中央委員會가 6月 12日 폴란드 統一勞動黨 中央委員會에 보낸 警告書翰이다. 同 書翰은 1,700單語에 달하고 있으나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1) 소련 共產黨 中央委員會는 社會主義國家로서의, 또 “自由獨立”國家로서의 폴란드의 運命에 대하여 깊은 不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書翰을 보낸다.

(2) 소련은 이미 數年에 걸쳐 폴란드 統一勞動黨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經濟政策을 修正하도록 忠告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그 結果 폴란드는 오늘날의 危機에 처하여 있다.

(3) 금번 폴란드危機의 첫날부터 우리는 黨이 “社會主義의 敵”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했으나, 黨은 “反社會主義 分子”들의 “內部的 反革命(internal counter-revolution)”의 壓力에 계속 양보하여 왔다.

(4) “反革命”은 「連帶」의 極端主義者들이 主導하고 있고, 이들은 勞動者들을 기만하여 그들이 “人民의 權力”에 對抗하여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

(5) 社會主義權力維持에 필요한 포지션들이 하나 하나 “反社會主義 分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6) “敵”들은 이미 매스메디아機關을 事實上 掌握하고 있다.

(7) 國家安全機關, 警察 및 軍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8) 統一勞動黨의 7月 黨大會의 代表를 뽑는 選舉도 “社會主義에 敵對的 인 力量”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黨大會에서 맙스-레닌이스트 力量이 敗北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48) CDSP, Vol. XXXIII, No. 17, pp. 3-4와 *Time*, May 4, 1981, p. 15.

(49) CDSP, Vol. XXXIII, No. 24, 1-3.

(9) “反革命分子”들은 反蘇主義를 高潮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소련이 폴란드를 착취하고 있다고 까지 宣傳하고 있다.

(10) 폴란드內의 “反社會主義”勢力의 공세는 社會主義陣營 全體의 利益을 威脅하고 있다.

(11) 카니아와 야루젤스키는 이 모든 問題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見解를 피력하고 있으면서도 實際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 우리는 社會主義 폴란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書翰은 그 内容으로 보아 警告書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최후통첩에 가까운 것이었다. “反社會主義的”勢力이 黨外의 權力포지션을 하나씩 掌握하여 가고 있을 뿐 아니라, 統一勞動黨 自體도 한달후에 있을 全黨大會에서 맙스-레닌主義的 性格을 잃을 可能性도 있다는 소련의 判斷과 더불어 소련은 社會主義 폴란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内容의 警告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소련은 1968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기 사흘 前에도 이와 類似한 内容의 書翰을 체코 共產黨에 보낸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엄중한 警告에 대하여 폴란드의 統一勞動黨과 「連帶」側은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소련의 警告書翰을 접수한 直後 緊急히 소집된 統一勞動黨 中央委員會 總會에서 카니아는 소련의 批判과 警告가 大部分根據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특히 反蘇主義와 反共產主義의 風潮에 대하여 신랄한 批判을 가했으며, 소련이 指摘한 메스메디아 機關의 問題性도 그대로 認定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穩健中道路線으로 事態를 鎮靜시킬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 그 證據로 最近의 平和로운 政·勞關係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 親蘇 강경파로 알려진 그랩스키(Tadeusz Grabski)가 “政治局이 카니아의 指導下에서는 폴란드를 危機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카니아의 退陣을 要求했다고 한다. 카니아와 政治局內의 그의 支持派들은 141名의 中央委員會 委員들이 그들의 指導力에 대한 信任投票를 해 줄 것을 要求하였으나, 中央委員會는 信任投票를 하지 않고 이 提案自體를 否決시킴으로써 黨 指導部를 그대로 留任시켰다. 그 다음 中央委員會는 소련의 警告에 따라 統一勞動黨의 저널리스티크 카들(journalistic cadre)의 成分을 再評價할 것을 約束하고, 「連帶」의 政治的 罷業을 禁止하는 決議案을 採擇한

후 閉會하였다.⁽⁵⁰⁾

소련이 警告書翰을 發送한지 한달만에 開催된 統一勞動黨 第9次 全黨大會는 소련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맙스—레닌主義者들의 敗北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民主的集中主義”的 實際를 상당히 損傷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폴란드 統一勞動黨은 史上 처음으로 全黨大會 代表 1964명을 地區黨에서 自由秘密選舉로 뽑았다. 黨代表候補는 黨指導部로 부터의 추천으로 뿐 아니라 平黨員의 추천으로도 나올 수 있었고, 代表選出은 秘密投票로 決定되었다. 이들 중 3/4이 過去 黨大會의 代表로 뽑힌 적이 없는 새로운 人物들이었고 이들은 中央委員會를 새로이 뽑고, 이 過程에서 카니아의 退任을 要求했던 政治局員 그랍스키를 脫落시켰다. 카니아는 원래 첫날 그의 再選을 확보하고 그 이후의 黨大會를 主導해 가려고 하였으나, 黨代表들의 反對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나흘 뒤에야 再選될 수 있었다.⁽⁵¹⁾

「連帶」는 소련의 警告書翰에 대하여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連帶」의指導者들은 오래 前부터 소련의 介入可能性에 대하여 警告를 받았고, 또 그들 역시 그러한 可能性을 考慮하였을 것이다. 「連帶」의 바웬사(Lech Walesa)委員長은 소련의 警告書翰이 들어온 以後의 한 演說에서 “「連帶」가 政府를 바꾸거나 政治活動을 할 目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明白히하였다.⁽⁵²⁾ 또 그간 「連帶」의 執行部는 카니아와 어느 정도妥協해 나가는 modus vivendi를 이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있는 「連帶」第一次 全國大會의 決議案과 縱領은 소련과의 同盟關係의 維持를 認定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改革要求에 있어서는 소련의 警告를 완전히 無視한 것이었다. 「連帶」가 이러한 決議案과 縱領을 採擇하게 된 背後에는 「連帶」內의 極端主義者들의 영향이 있었을 可能性도 있다. 이들은 바웬사가 平勞組員들의意思를 無視하고 獨走한다고 종종 非難하였고, 「連帶」一次 全國大會에서 바웬사의 指導力에 挑戰하기도 하였다. 바웬사는 이 大會에서 55.2%의 支持를 얻어 執行委員長에 當選되었으나, 그의 反對者들은 “「連帶」가 너무 穩健하게 後退하였다”든가 소련이 帝國主義國家이고 폴란드는 바르샤바 條約

(50) *Time*, June 22, 1981, pp. 20-21.

(51) *Time*, July 27, 1981, pp. 24-26과 George Schöpflin, “The Polish Congress and After,” *Soviet Analyst* Vol. 10, No. 15, July 22, 1981, pp. 1-2 參照.

(52) *Time*, June 22, 1981, p. 21.

機構로부터 脫退할 權利가 있다는 等의 發言까지도 하였다.⁽⁵³⁾

소련은 「連帶」第一次 全國大會의 過程과 結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통렬히 非難하였다. 소련은 타스통신, 「프라우다」「이즈베스챠」等을 통하여 「連帶」全國大會가 “反社會主義者와 反蘇主義者の 오지(orgy)”라고 謗謗하는 한편⁽⁵⁴⁾, 소련 勞動者集團들로 하여금 폴란드 勞動者에게 「連帶」를 非難하는 公開便紙를 보내게 하였다. 이 便紙도 메스메디아機關과 같이 아주 극렬한 表現으로 「連帶」를 批判하였다. 그 예를 들면 9월 11일 모스크바의 리카초프 自動車工場의 勞動者들은 「連帶」가 “敵對階級”에 의하여 支配 당하고 있다는 要旨의 書翰을, 레닌그라드의 키로프 生產組合은 「連帶」가 資本主義를 復活시키려고 한다는 内容의 便紙를 폴란드 勞動者들에게 보냈고, 이와 비슷한 内容의 편지를 민스크의 레닌트랙터工場, 키에프의 레닌武器工場, 모스크바의 햄머 시클工場 等의 勞動者들도 거의 連日 보내왔다. 특히 이들 書翰의 大部分은 「連帶」가 東歐諸國의 勞動者들에게 보낸 自由勞組結成促求 메시지에 대한 신랄한 非難을 싣고 있다.⁽⁵⁵⁾

소련은 「連帶」全國大會가 시작되기 直前부터 9일간에 걸쳐 이 大會 開催地인 그다니스크 부근 발틱海에서 國防長官 우스티노프(D.F. Ustinov)의直接指揮下에 海軍訓練을 가졌다. 소련은 이 訓練이 이미 事前에 計劃된 軍事訓練에 不過하다고 辨明하였으나, 이것도 소련 勞動者들의 書翰보내기 運動과 더불어 「連帶」를 威脅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連帶」는 既存體制에 正面挑戰하는 決議案과 綱領을 採擇한後 閉會하였다.⁽⁵⁶⁾

소련은 이와같이 「連帶」에 대한 攻擊을 계속하는 한편, 카니아의 解任을 폴란드 統一勞動黨에 要求한 것 같다. 10月 9日 UPI通信은 소련이 카니아의 問題處理能力에 심한 不滿을 가지고 있으며 곧 열릴 中央委員會 總會가 그를 解任하도록 工作하고 있다고 西方側 外交 소식통을 引用하여 報道하였고⁽⁵⁷⁾, 日本 朝日新聞의 그다니스크 特派員 大谷慧는 10月 12日 소련이 폴란드 統一勞動黨 指導部에 카니아의 解任을 要求하는 非公開書翰을 보냈다

(53) *Time*, October, 12, 1981, pp. 8-9와 『朝日新聞』, 1981年 10月 9日 朝刊, 4面 參照.

(54) CDSP, Vol. XXXIII, No. 36 參照.

(55) CDSP, Vol. XXXIII, No. 37과 No. 38 參照.

(56) CDSP, Vol. XXXIII, No. 36, pp. 6-7.

(57) 『朝日新聞』, 1981年 10月 9日, 夕刊, 2面.

고 統一勞動黨의 소식통을 引用하여 報道하였는데,⁽⁵⁸⁾ 이러한 報道대로 카니아는 10月 18日 黨 第一書記職으로부터 辞任하였다. 그의 後任으로는 10年 以上 國防相에 在職하였고, 카니아 밑에서는 首相職에 있던 야루젤스키 將軍이 選出되었다. 그는 재작년 여름 勞動者 罷業時에는 武力使用을 反對하였다며 하나, 작년 12월에는 戒嚴令 宣布라는 단호한 조치로 「連帶」의 活動을 禁止시켰다. 그리고, 야루젤스키 將軍이 이와 같이 非常手段을 써서 「連帶」의 活動을 禁止하게 된 背後에는 體制自體의 危機와 더불어 여태껏 살펴 본 소련의 壓力이 있는 것이다.

V. 結語

폴란드의 自由勞組 「連帶」의 불꽃은 이제 되살아날 수 없는 것인가? 戒嚴令宣布 以後 한달 동안 罷業과 占據에 突入한 工場과 탄광 數는 199개에 달하고 抗議行動에 參加한 勞動者數도 全體 勞動者의 10%에 달하였으나, 폴란드 軍政當局은 이를 鎮壓하는데 成功하였다. 이와 아울러 폴란드 軍政當局은 「連帶」幹部 5,000餘名을 아직까지도 감금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것이豫想된다.⁽⁵⁹⁾ 그理由로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壓力を 들 수 있다. 소련은 야루젤스키 將軍의 戒嚴令 宣布에 의한 「連帶」活動 禁止政策이 失敗할 경우 이에介入할意思를 “友好的 協力”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여 밝힌 바 있고⁽⁶⁰⁾, 폴란드軍의 制服을 입은 소련兵士가 戒嚴令 宣布 前에 이미 폴란드領內의 一部 空港이나 武器庫의 警備를 맡았다는 說도 있다.⁽⁶¹⁾ 둘째로 야루젤스키 將軍은 統一勞動黨의 親蘇 強硬派 政治局員 올쇼프스키가 이끄는 그룹의 挑戰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오래 前부터 폴란드가 오소독스한 맙스-레닌이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主張하여 왔고, 이들의 主張은 소련과 特權官僚階層의 支持를 받아 왔다. 그들은 最近 스탈린主義的 縱領을 그들의 支持者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카니아의 穩健中道路線을

(58) 『朝日新聞』, 1981年 10月 12日, 朝刊, 6面.

(59) 『朝日新聞』, 1981年 1月 11日, 朝刊, 參照.

(60) 『朝日新聞』, 1981年 12月 14日, 夕刊, 1面.

(61) 이의한 事實은 1981年 8月 西方側으로 亡命한 폴란드의 退役將軍 레운 도우비 쓰기가 Spiegel誌와의 會見에서 밝혔음. 『朝日新聞』, 1981年 12月 28日 朝刊 4面에서 再引用.

批判하고 穩健中道派의 肅清까지도 要求하고 있다고 한다.⁽⁶²⁾

그러나 폴란드가 現在 當面하고 있는 客觀的인 狀況은 폴란드의 共產主義體制가 올쇼프스키의 主張과 같이 스탈린主義의 맙스-레닌이즘體制로 後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폴란드의 歷史的 特殊性이나 社會·宗敎的 特殊性은 且置하고라도, 폴란드政府는 當面 經濟危機를 勞動者, 一般國民의 協助와 西方의 協力を 받지 않고서는 克服하기 어려운 狀況에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現在 世界 10大 工業國에 屬하는 國家인데, 이렇게 發展된 段階의 工業生產力은, 더군다나 그 生產手段이 國家所有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強制勞動으로는 維持되기 힘들다.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 하는 工場의 生產力を 높이기 위해서는 그 勞動者들의 自發的인 勞動態度가 必要한 것이다. 폴란드의 基幹產業의 生產力이 지난 1年間 罷業事態로 인하여 25%나 低下되었지만, 이의 補充이 단순한 罷業禁止措置로 成就될 수 없는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消費面에서도 폴란드는 오늘날 식료품을 포함한 基本 消費財의 生產이 絶對的으로 부족한 狀態에 있고, 또 이들의 價格이 非現實的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폴란드政府는 당분간 이러한 消費財 품귀현상을 解決할 能力이 없고, 또 消費材의 價格을 30~300%까지 올려야 될 立場에 처하여 있다. 폴란드 歷史上 오늘날만큼 폴란드政府 施策에 대한 一般 消費者의 協力이 必要한 때는 없었고, 이러한 協力を 強制的인 手段으로는 오랫동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폴란드가 오늘날 當面한 經濟危機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西方側의 理解와 協助도 거의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 하겠다. 폴란드는 西方側에 250억 달라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고 1982年에 갚아야 될 元金과 利子만 하여도 100억 달라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폴란드政府의 外換保有高는 1981年 9月末 現在 2억 2천 8백만 달라에 不過하였다.⁽⁶³⁾ 또한 폴란드는 總貿易量의 半以上을 西方側에 依存하고 있고, 最小限의 輸入確保를 위하여 今年에도 60억 달라의 新規融資가 必要하다고 한다.

카니아政權이 1981年 内外 自由勞組「連帶」에 대하여 強壓政策을 삼가고妥協政策을 써 온 것은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였고, 소련이 최후통첩에 가까운 警告를 보내고서도 武力介入을 삼가한 것도 마찬가지 理由가 상당히 作

(62) *Time*, March 8, 1982, p. 16.

(63)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0, 1981, p. 6.

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戒嚴令 宣布 以後에도 軍政當局者가 「連帶」가 野黨的 活動을 하지 않는 限 그 存續의 餘地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바웬사와의 妥協을 求한 것도 같은 理由에서 였을 것이다.

바웬사와 「連帶」幹部들은 이와 같은 妥協을 拒否하였고, 폴란드 軍政當局은 最近 「連帶」指導者들에 대한 非難을 激化시키고 勞動者들이 業種別로 그들의 勞組를 再組織해야 한다는 指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勞動者들에 대한 全體主義的 統制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폴란드 政府는 制限된 經濟的 利益追求의 限界內에서 勞組의 活動을 許容하는 “코퍼러티즘의” 支配形態를 다시 擇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支配形態는 下位體系의 制限的 自律性을 特徵으로 하는 바, 이것은 恒時 制約에 挑戰하는 傾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自由勞組 「連帶」의 불꽃이 되 살아날 可能性은 결코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